

보도시점 2023. 12. 27.(수) 10:00

##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

- 1.5조원 투입... 83.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
- 8만개+알파( $\alpha$ ) 사업장 선정 → 상담(컨설팅)·인력·장비 중점 지원
-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, 2만명 전문인력 양성 및 원·하청 상생협력 강화
  - 1분기 사업 조기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

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일(수) 9: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('24~'25년)간 50인 미만(5~49인)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「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·발표하였다.

### < 당정협의 개요 >

- ▶ (일시/장소) '23.12.27(수), 9:00 ~ 9:40 / 국회 본관
- ▶ (참석자) (당(黨)) 정책위의장, 원내수석부대표, 환노위 간사 등  
(정(政)) 고용부 장관, 기재·중기·국토·산업부 차관 등  
(민(民)) 중기중앙회

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,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·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, '24년중 1.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.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, 성과평가 등을 거쳐 '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### ①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

[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] 먼저, 관계부처·공공기관 및 협·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, 50인 미만(5~49인) 사업장 83.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'산업안전 대진단'을 실시한다.

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, 중점관리 사업장(8만개+알파( $\alpha$ ))을 선정하여 상담(컨설팅)·인력·장비 등을 묶음(패키지)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
### ②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

[상담(컨설팅) 및 교육·기술지도]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담(상담(컨설팅)) 및 교육·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(31.6만개)하고,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·강화한다.

**[인력양성]** 또한,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**전문교육과정 운영,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,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** 등을 통해 '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.

특히,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**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(600명) 신설**을 통해 지역·업종별 협회·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**공동안전관리 상담(컨설팅)**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### ③ **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**

**[안전장비·설비]** 사업장의 노후·위험공정 개선 및 지능형(스마트)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**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(2.4만개)**, '지능형(스마트)공장+지능형(스마트)안전' 등 **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형(모델)** 발굴·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.

### ④ **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**

**[협·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]**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**자구책 마련**과 함께,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**산업단지**에 대한 **통합안전관리 지원**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.

**[원·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등]**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**안전관리 지원**을 강화하고,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**확산**하는 한편,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**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**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**유인책(인센티브)**도 적극 부여한다.

또한, 건설분야 **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** 등을 통해 **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**를 확대해 나가고, 공사단계별 **위험요인**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**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** 등 **제도개선**도 추진할 계획이다.

**[안전보건산업 육성]**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·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**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**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, **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** 제정도 검토한다.

이를 통해 **그간 분절적·산발적**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**종합적·체계적**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, 특히 **노사 및 전문가집단(그룹)** 등에서 **안전 사각지대**로 지목해 온 **외국인력, 노후 산업단지, 하청업체** 등에 대한 **중대재해 예방역량**이 한층 더 **강화될** 것으로 기대한다.

마지막으로,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**빠르게 체감**할 수 있도록 '24.1/4분기부터 **사업을 조기집행**하는 한편,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**합동**으로 **대책 이행상황 점검**을 통해 **후속대책 및 제도개선**을 **2년간 속도감 있게**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별첨: 「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」

<기획재정부>	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	책임자	과 장 박성궐 (044-215-8550)
		담당자	사무관 송상목 (044-215-8551)
			사무관 변유호 (044-215-8554)
<고용노동부>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	책임자	과 장 김태연 (044-202-8950)
		담당자	서기관 서규진 (044-202-8951)
			사무관 정치환 (044-202-8952)
<중소벤처기업부>	중소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동원 (044-204-7440)
		담당자	서기관 문종원 (044-204-7442)
			주무관 류희열 (044-204-7446)
<산업통상자원부>	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	책임자	과 장 이용훈 (044-203-4220)
		담당자	사무관 김지은 (044-203-4226)
<국토교통부>	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 이상옥 (044-201-4937)
		담당자	사무관 전 진 (044-201-3574)
			주무관 박성준 (044-201-3575)